



AIDS NEWS

만델라 "에이즈 대처 국제협력 절실"

"에이즈 발병 증가만 여전히 1명 치료시 4명 감염골"

(오하네스버그 AP,AFP=연합뉴스) 에이즈 퇴치에 앞장서온 넬슨 만델라(89)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일 '여전히 세계의 에이즈 감염환자는 증가중이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에이즈의 날'인 이날 자신이 주최해 남아공 오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에이즈 퇴치 기금 마련 동조의 46664 자선공연에 참석, 이 같이 말했다. 만델라는 "에이즈 환자 발생건수는 지난해 거의 4천만명에서 올해 3천320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명이 치료받을 때마다 4명이 감염되는 꼴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새로운 HIV바이러스 감염 순환의 고리를 끊고 유행을 반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만델라와 과거 수감 당시 죄수번호 46664를 딴 이번 공연은 오하네스버그 도심인 엘크 스타크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총 1만5천명 가량이 참석했다. 4천800만명에 이르는 남아프리카 주민 가운데 거의 550만명이 에이즈 감염자이며 이 가운데 거의 일 평균 사망자는 900명에 이른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가시적이고 현저한 성과를 일궈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를 상대로 향후 5년간 에이즈 퇴치를 위한 지원액을 300억달러로 증액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과 관영 신문에는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에이즈 감염 여성과 악수하는 모습이 실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콘돔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개시했다. 또 페루 라마공원에서 3천명이 참여한 에이즈 퇴치 인간다움잇기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 2007.12. 02〉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성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은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11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까지 덕신기념관(용산구 효창동)에서 개최했다.

UNAIDS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각각 'Stop AIDS, Keep the Promise'와 '리더십(Leadership)'으로 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올해 20회째를 맞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리더십(Leadership)'과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정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

사에는 둔학계 인사들이 참여의 뜻을 밝혀 주제와 부합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거임했다. 아울러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헌신한 우공자 43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도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이즈 확산방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감염인에게 따뜻한 이 하와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의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문옥륜 회장,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최창원 회장, (사)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모임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 에이즈 및 보건단체 관련 단체장, 시민 김남조, 한크시민협회장 오세영, 화가 권상호 등이 주요인사로 참석했다.

한편,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고 에이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2월 1일 전후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사)구서군대헌병영은 서울 청계천에서 에이즈 관련 상설 캠페인 및 Brass Band 연주회, 에이즈 예방 퀴즈풀기와 콘돔배포 등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대학로 다로니에공원에서 12월 '일 길거리 에이즈 예방 고실을 운영하며 에이즈 관련 상담, 에이즈 익명검사 홍보, 콘돔 캐릭터를 활용한 거리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대문 두타광장에서는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콘돔캐릭터 홍보, 공연 이벤트, 익명검사 홍보, 패널 전시, 에이즈예방 OX퀴즈 등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12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일리서프라이즈 보도자료 2007. 11. 30〉

AIDS 잘 관리면 35년 생존...

96년 항HIV요법 도입 치료효과 향상

"에이즈는 더 이상 인류의 재앙이 아니다."

황장민·조도연 주연의 영화 '너는 내 운명'은 건강한 남성이 에이즈 감염 여성과 결혼하 갈등을 겪는 내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가 과장된 설정이 됐다. 전문가들 '에이즈의 공포'는 질병 자체보다 사회가 만들어 냈다고 입을 모은다. 에이즈는 처음 발견될 당시 인류 최악의 '불치병'으로 불렸다. 그러나 '996년 강력한 항-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효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만성질환쯤으로 위협도가 낮아졌다.

최근 발표된 덴마크 H-V 감염자 생존을 연구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평균 3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대여명'이다. 또 미크 에이즈 환자 '00명 가운데 연간 사망자 수는 1.3명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에이즈와 관련된 면역기능 약화로 인한 사망은 0.3명에 불과하다.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처럼 슬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과 건강한 여성이 결혼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 출산도 원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역시 약물치료 효과 때문이다.

에이즈 감염자인 임신부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태아의 감염 위험은 20%이지만,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수직감염 위험은 1%대로 떨어진다. 더욱이 항-HIV 약물은 임신 중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크지 않다. '두서먼'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어서 독할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에이즈 처방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내성도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최근 해외에서 하루에 한번만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제도 판거 중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등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만성 질환'의 하나가 된 셈이다. 특히 모든 에이즈 감염자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면역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크게 에이즈 사망자 중 흔한 사례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줄 몰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라며 "치료를 제대로 받은 환자라면 대부분 일반인과 다름없이 노년에 암·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에이즈에 대한 오해로 감염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보다 사회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모두 4956명이다. 하루 평균 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5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숨어 있는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은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신원이 파악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검사를 꺼리는 감염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늬만 익명검사가 아니라 양성으로 확진되더라도 신원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진짜 익명검사를 실시해야 에이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서프라이즈 보도자료 2007. 11. 30〉

에이즈는 바이러스 질환... 편견 버리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1명꼴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누적 감염인 수는 5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즈는 1981년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4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걸린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정하고 있다. 초기 발견 때는 동성연애자와 마약 중독자가 환자의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도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 에이즈는 감기·간염·홍역과 같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감기 환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따로 격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핏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격리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편견과 차별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을 더욱 음지로 숨어두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에 맞서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이즈는 초기에는 '걸리면 금방 죽는 불치병'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감염자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품이 개발되면서 심장병과 당뇨병 등과 같이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던 태국에서는 감염인들이 숨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통해 감염률을 낮춰 나가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간다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사회에 또 다른 소외된 이웃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 : 2007. 12. 11〉